

서울특별시 AI 양재 허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1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5월 25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LG,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 개의 R&D 중소 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전 산업의 기반기술인 AI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앵커시설로서 「AI 양재 허브」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.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고, 2023년 5월 AI 혁신 지구의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 및 AI+X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AI 지원센터(가칭)가 개소·운영 예정으로 위탁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현 위탁시설 개요

- 위탁시설 : 한국교총회관, 하이브랜드빌딩, 희경빌딩, AI교육센터
- 위 치 : 서초구 양재동, 우면동 일대
- 규 모 : 연면적 18,212㎡ ※ '23.5. AI지원센터(10,020㎡) 추가 예정
- 수탁기관 :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-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
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18명
- 2022년 예산 : 6,824백만원(민간위탁금)
- 시설현황

건 물 명	주 소	사용면적 (㎡)	사용층	개소 시
한 국 교 총 회 관	서초구 태봉로 114	4,000	지상 1·5·6·8층	'17.12.
하이브랜드빌딩	서초구 매현로 16	2,958	지상 12·13층	'19.06.
		1,393	지상 13·14층	'21.02.
희경빌딩(B·C동)	서초구 매현로8길	3,743	지하1층~지상 4층	'20.01.
희경빌딩(F동)		1,795	지하1층~지상 4층	'20.07.
희경빌딩(D·E동)		3,225	지하1층~지상 4층	'21.04.
A I 교 육 센 터	서초구 태봉로 108	1,098	지하1층~2층	'20.06.
AI지원센터(가칭) (신규)	서초구 태봉로 108	10,020	지하1층~지상 7층	'23.05 (예정)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AI 양재 허브 운영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시설 : 한국교총회관, 하이브랜드빌딩, 희경빌딩, AI교육센터,
AI지원센터(추가)

《 AI 지원센터(추가 위탁시설) 개요 》

- 위 치 : 서초구 태봉로 108
- 규 모 : 지하1층/지상7층, 연면적 10,020㎡
- 주요시설 : 회의 및 교육공간, 소룸, 공동연구공간, 연구기관 및 기업입주공간
- 주요기능 : AI 혁신지구 앵커 및 AI+X 핵심거점 역할 수행
 - 산학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유공간 중점 제공
 - 공동연구 및 소통, 활발한 시민참여, AI 인재양성 공간으로 활용

○ 소요예산 : 26,965백만원(3년)

- 2023년 7,910백만원, 2024년 9,074백만원, 2025년 9,981백만원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AI 클러스터 활성화
- AI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
- AI+X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
- AI 분야 최고수준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
-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AI 양재 허브 시설 관리 및 운영

라. 민간위탁 추진 경위

구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7.08.01.~ '20.06.30.	한국과학기술원(KAIST)- (주)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	공개모집	최초 위탁
2차	'20.07.01.~ '22.12.31.	국민대 산학협력단 -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	공개모집	재위탁

마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, 제6조(전문인력 양성), 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 및 제17조(사무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AI 양재 허브는 AI 융복합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공공·민간·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기업 간 교류 협업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함
- 이를 위해, AI 분야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,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, AI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, 산업간 융복합 네트워킹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·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 필요

바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22.5.12. 개최) 심의 결과 : 적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전문인력 양성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·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·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.

제7조(창업 및 기술지원 등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·교육 및 상담
2.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
3. 디지털 전환 지원
4.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, 관계기관의 지정·운영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」

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기업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2.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인공지능 관련 특화기업을 발굴·육성하는 ‘AI 양재 허브’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(2022.12.31.)되고, AI 지원센터 신규 조성(2023.5.)으로 위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됨.

나. 양재 AI 혁신지구 추가공간 조성

-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·우면동 일대 약 300만㎡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연구 및 창업 중심지(양재 AI 혁신지구)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전문지원기관인 AI 양재 허브를 조성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AI 특화 기업의 발굴·육성, 전문가 간의 소통·교류 지원 등을 하고 있음.
- 양재 AI 혁신지구 내 공공인프라로는 AI 양재 허브(기업 입주공간 등), AI R&D 캠퍼스(2027년 개관예정)가 있고, 민간 R&D 시설로는 KT·삼성·LG·현대 등 대기업 연구소와 280여개 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음.

〈양재 AI 혁신지구〉



- AI 양재 허브(이하 “양재허브”)는 현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-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(2020.7.1 ~ 2022.12.31.) 하여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,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,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.
-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수요를 증대시켰지만, 전문 인력, 기술인프라 등은 부족해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육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는 양재동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양재허브를 중심으로 집적화와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,

그 일환으로 2023년 개관 예정인 AI 지원센터 등 주요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 운영·관리에 적합한 전문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게 됨.

< AI 지원센터 신설 계획 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치: 서초구 우면동 141 ◦ 규모: 지하1/지상7, 연면적 10,020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조성방법: 신축 운영 ◦ 소요예산: 35,369백만원 ◦ 주요시설: 회의 및 교육공간, 쇼룸, 공동연구 공간, 연구기관 및 기업입주공간 ◦ 주요기능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·학·연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유공간 중점 제공 - 공동연구 및 소통, 활발한 시민참여, AI 인재양성 공간으로 활용 	
---	---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서울시는 AI 지원센터 신설 등으로 관리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, 보다 역량 있는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.
- 양재허브의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말로 만료되며, 내년 개관(2023. 5.) 예정인 1만 20㎡ 규모의 AI 지원센터가 신규 위탁시설로 추가될 예정임.

< AI 양재 허브 위탁시설 >

<현 위탁시설>	<향후 위탁시설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교총회관(4,000㎡) ◦ 하이브랜드빌딩(4,351㎡) ◦ 희경빌딩 5개동(8,763㎡) ◦ AI 교육센터(1,098㎡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한국교총회관(4,000㎡) ◦ 하이브랜드빌딩(4,351㎡) ◦ 희경빌딩 5개동(8,763㎡) ◦ AI 교육센터(1,098㎡) ◦ AI 지원센터(가칭)(10,020㎡)- 추가

- 양재허브는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·관리부터 인재 양성과정 운영,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조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전문지식과 우수한 인력, 장비 등의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방식일 수 있음.
- 그동안 양재허브 입주기업의 수는 2020년 78개사에서 지난해 94개사 (증가율 21%)로 증가했으며, 투자유치액 또한 124%(521억원→1,168억원) 증가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.

< AI 양재 허브 입주기업 주요성과 >

입주기업(개)			투자유치(백만원)			근무자수(명)		
'20년	'21년	증가율	'20년	'21년	증가율	'20년	'21년	증가율
78개	94개	21%	52,100	116,770	124%	629명	732명	16%

- ‘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’ (2022.4.) 결과에 따르면, 양재허브는 AI 기술 사업화, 투자유치 지원, 전문인재 양성 교육 등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, 사회적 가치 기여(근로여건 및 노동안정 노력)와 필수교육 이수 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- 특히,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수탁기관의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노력¹⁾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난 3년간 전환 실적은 전무함.
- 현재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68.4%로 높은 수준이며, 양재허브에 상근인원 중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어 안정적인 인력 활용과 고용안정이 필요함.

< 시 양재 허브 인력구성 현황 >

구분	정규직 인원수	비정규직 인원수	수탁사업 총인원	정규직 비중	비정규직 비중
2022년	6	13	19	31.6%	68.4%

- 정규직원 6명(현원 19명, 비정규직 13명) 중 5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의 비상근 직원으로, 센터장을 제외한 양재허브 상근인원 전원(국민대 산학협력단)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임.

< 수탁기관 별 인력구성 및 고용형태 >

구분	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(상근)	한국전자통신연구원 (비상근)
정규직 (6명)	1명(센터장)	5명
비정규직 (13명)	13명	-

1) 「민간위탁 위·수탁 표준협약서(시설형)」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 정규직 비율을 25%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며,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- 이 밖에 신규 채용공고를 서울시 홈페이지, 서울일자리포털,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 등 2곳 이상에 게시²⁾하지 않고 미공시했으며, 수탁 기관 노동자 다수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.
-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협약내용과 필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엄격한 관리·감독과 함께 불이행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됨.
- 더불어 신규 수탁기관 선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 구성원들의 고용승계와 고용형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
- 또한 AI 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예산과 인력 등에서 양재허브의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업의 고유 성격과 방향성을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재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박은샘	02-2180-8064

2) 「민간위탁 위·수탁 표준협약서(시설형)」 제11조제2항